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2024년 제106호
2024.05.16.(목)

Ⅰ.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반도체 美 상무부, 인텔·퀄컴 등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
- 중동·에너지 이라크, OPEC+ 추가 감산 비동의 및 中에 석유·가스 개발권 제공
- 중국·통상 中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면화, 여전히 全 세계 제품에 활용
- 미국·반도체 美, 반도체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 2억 8,500만 달러 지원 예정

주간 이슈 포커스

- 미·일·반도체 인텔, 日과 협력해 반도체 후공정 연구조직(SATAS) 설립

원자재 뉴스 PLUS

- 철강 남아공, '24년 1분기 페로크롬 생산량 감소

Ⅱ.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이슈와 관리 방안

Ⅲ. 공급망 더 알아보기

중국의 식량 안보 관련 동향

Ⅳ. 공급망 소식통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美 상무부, 인텔·퀄컴 등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

- 美 상무부는 5.8일(현지시간) 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인텔·퀄컴 등 일부 기업들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발표
  - 동 조치는 인텔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화웨이의 AI 노트북이 출시된 이후 발표되었으며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中 기업 6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
  - 지난 '24.4월 中 기관이 美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회 확보한 바 있으며, 美 정부는 관련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
- 다만 블룸버그는 인텔과 퀄컴의 상위 고객 목록에 화웨이가 포함되지 않아 동 규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

핵심 키워드	첨단반도체	대중제재

출처: 블룸버그('24.05.08), 로이터통신('24.05.0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중동, 에너지 이라크, OPEC+ 추가 감산 비동의 및 中에 석유·가스 개발권 제공

- 5.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라크는 OPEC+의 추가 감산 비동의 의사를 피력하며 **中 석유 기업이 이라크에서 10곳 이상의 석유·가스 탐사권을 낙찰**받았다고 발표
  - 이라크의 동 조치는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정유 제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라크 국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현재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 및 IS 내전으로 파괴된 석유 인프라 재건을 위해 **中 자본을 대거 끌어들이는 추세**로, 위안화 석유 거래 허용을 하는 등 中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

* 중국은 이라크 수출 석유('24년 일평균 426만 배럴 생산, OPEC 2위 수치)의 약 30%를 구매 중

핵심 키워드	원유 감산	일대일로

출처: 로이터통신('24.05.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중국, 통상 中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면화, 여전히 全 세계 제품에 활용

- 5.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및 글로벌 소매 제품의 19%가 중국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면화*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보도

  * 美 정부는 '21년 신장産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EU는 올해 초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입법하여 규제

  - **천연자원 분석·동위원소 테스트 업체**에서 '23.2월~'24.3월까지 미국 및 전 세계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82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판매 제품의 19%*에서 신장産 면화 사용

  * 신장産 면화가 사용된 품목 중 57%는 '미국 원료 사용'으로 원산지 표기, 3분의 2는 신장 이외 지역 면화와 혼합

- 美·EU 규제에도 불구, **공급망이 복잡하고 일부 기업이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규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

  - '22년 발표된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中 신장에서 全 세계 면화 공급량의 23%를 생산하였으며, **베트남·캄보디아·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주요 의류 생산국은 中 신장産 면화를 수입**하여 의류 생산

핵심 키워드 강제노동 면화

출처: 로이터통신('24.05.03), KBA Europe('24.05.0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 반도체 美, 반도체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 2억 8,500만 달러 지원 예정

- 5.6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법에 따라 **디지털 트윈* 등 반도체 기술 개발 독려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동했다고 발표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현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이를 가상 화면에 반영해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

  - 특히 반도체 칩 제조 산업 관련 디지털 트윈 개발 연구소 설립 및 운용을 위해 2억 8,500만 달러(약 3,900억 원)를 신청

  - 동 지원금은 ▲연구소 운영, ▲디지털 트윈 기초 및 응용연구, ▲물리적·디지털 시설 구축, ▲관련 산업 인력 교육 등에 소요될 예정

  - 동 기술은 반도체 개발과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반도체 제조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용도

핵심 키워드 반도체법 디지털 트윈

출처: 로이터('24.05.08), 연합뉴스('24.05.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일, 반도체 인텔, 日과 협력해 반도체 후공정 연구조직(SATAS) 설립

□ 5.7일(현지시간) 美 인텔과 오므론 등 日 기업 14개사는 반도체를 최종 제품으로 조립하는 후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한 SATAS*를 4.16일자로 설립했다고 발표

* SATAS(Semiconductor Assembly Test Automation & Standardization Research Association) :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표준화 기술연구조합

- 수년 내 日 국내 실증 라인을 가동하고, '28년까지 기술을 실용화해 공장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 예정

SATAS 출범 개요

배 경	□ 기존 후공정 생산공정은 **인건비가 저렴한 中·동남아에 집중** - 후공정의 칩 운반·조립 작업 등은 인력에 의존하므로, 인건비가 저렴한 中·동남아에 공장이 집중 - '22년 기준 全 세계 **후공정 공장 생산능력의 38%를 中**이 차지 [자료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목 표	-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후공정의 자동화 추진 - 中·동남아에 편중된 공급망을 **美·日·유럽으로 분산**하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달성	
현 황	- 日 기업은 자동화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보유 중 - 인텔이 日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에 공동 개발을 요청	
추진 내용	- **수년 내 일본 국내 실증 라인 가동** - **'28년까지 기술을 실용화**하여 공장에 도입 -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日 참가기업	장치·시스템 개발 분야	오므론·신포니아테크놀로지·다이후쿠·히라다가공 FUJI·미라이얼·무라타기계·야마하발동기·로체 미쓰비시종합연구소·세미재팬
	소재 개발 분야	신에츠폴리머·레조나크
	시험 라인 구축 분야	샤프

향후 전망

□ 日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안보 관점에서 이뤄지는 삼성·TSMC의 해외 공장 설립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가절감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자동화가 절대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

핵심 키워드 반도체 후공정 탈중국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5.07), 일본 경제 브리핑 제24-17호('24.05.13)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철강 남아공, '24년 1분기 페로크롬 생산량 감소

□ 5.6일(현지시간) 남아공 페로크롬* 생산기업 Merafe Resources는 '24년 1분기 페로크롬 생산량이 77,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발표 출처: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종합

* 페로크롬(Ferrochrome): 스테인리스강의 재료로 활용되며, 주로 남아공과 인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크롬합금철

○ 남아공 러스텐버그(Rustenberg) 지역 소재 페로크롬 제련소가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가동을 중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2주)

비철금속 | 中 수입 증가했으나 美 금리 인하 지연으로 동 가격 보합세, 공급과잉에 따른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5.1주	5.2주	전주비(%)
동	8,478	8,703	2.7	9,819	9,814	△0.1
니켈	21,474	17,001	△20.8	18,775	18,654	△0.6
아연	2,647	2,520	△4.8	2,878	2,879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 동 수입 확대 및 칠레 동광 생산 부진에도 불구, 美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며 보합세 시현

□ **(니켈)** 인니 니켈 정·제련 생산능력 증강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재고량 증가하면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5월 2주차 니켈 재고량은 80,015톤으로 전주 대비 1.4% 증가(3주 연속 증가세)

철강 | 주요 생산기업의 생산실적 부진에 따른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5.1주	5.2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8.71	△25.7	145.95	144.62	△0.9
원료탄	295.71	291.82	△1.3	241.44	241.50	0.02
철광석	119.32	121.61	1.9	117.40	117.64	0.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中 철광석 수입 실적 개선으로 철광석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금년 1분기 中 조강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며 상기 상승압력 일부 상쇄

□ **(유연탄)** 주요국 계절성 소비둔화 우려로 연료탄 가격 하락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2주)

희소금속 | 원료 비용 상승세로 페로망간 가격↑, 제안가 상승으로 희토류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4월	전년비(%)	5.1주	5.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20	△11.5	1,250	1,280	2.4
탄산리튬	35,697	14,434	△59.6	15,234	15,224	△0.07
수산화리튬	37,972	12,959	△65.9	14,269	14,209	△0.4
코발트 (U$/lb)	17.82	17.02	△4.5	16.80	16.63	△1.0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4,949	△16.7	283,500	283,700	0.07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552	△30.4	56,500	57,300	1.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노동절 이후 원료 비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가격 상승
- **(코발트)** 유럽 코발트 금속가는 수요업체 구매 문의 증가로 가격 소폭 상승
- **(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은 노동절 이후 가격이 유지된 후, 中 장시성 지역의 환경 점검으로 가격 상승세
  - 산화 네오디뮴은 공급업체가 수요증가를 예상해 제안가를 높이며 전주 대비 가격 상승

에너지 | 러시아의 증산 가능성 언급, 美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	5.1주	5.2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83.31	1.21	86.53	83.95	△2.58
브렌트유	82.17	83.60	1.44	85.27	83.49	△1.78
WTI	77.60	78.88	1.27	80.12	78.78	△1.35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러시아의 OPEC+ 증산 가능성 언급, ▲美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유가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美 원유 재고 감소 및 러시아 석유시설 피격 등은 상기 하방압력 일부 상쇄
  -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5.7일(현지시간) OPEC+ 증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OPEC+ 내에서 증산에 대해 현재 논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고 밝힘
  - 5.7일, 5.9일(현지시간)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Bashkortostan)에 소재한 석유 저장시설 및 정제설비가 피격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이슈와 관리 방안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연경흠 상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변환을 통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며 국내 소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계획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 및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필요성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자국 보호 정책의 증가는 중간재 교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기반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변화 전략과 함께 자원 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소부장 산업에서 수입의존도를 현재 70%에서 '30년까지 50% 이하로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국내 정부의 공급망 대응 전략 동향

2. 산업 공급망 3050 전략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미래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변화 전략과 함께 자원 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소부장 산업에서 수입의존도를 현재 70%에서 '30년까지 50% 이하로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원자재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는 생산 가치사슬에서 중간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중간재는 1회 이상의 가공 공정을 거친 상태로,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액 중 소부장 생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2년 국내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는 수출 3,7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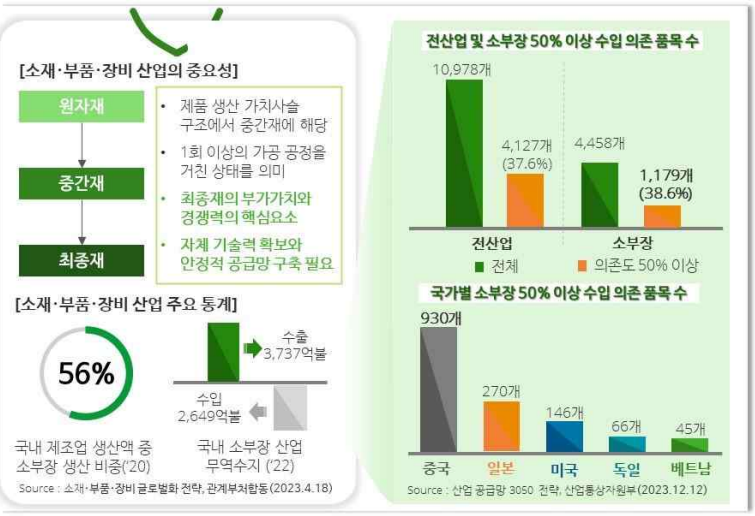
  * [자료원]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관계부처합동(2023.4.18)

- 그러나 국내 산업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수입의존도가 높다. 전 산업에서 5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는 4,127개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며, 소부장 산업에서는 1,179개로 38.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베트남 등 특정 국가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자료원]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산업통상자원부(2023.12.12)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체 기술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입 대체를 넘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 소부장 산업의 수입의존도 (딜로이트 재정리)



3. 최근 글로벌 공급망 동향 및 규제 대응 전략

세계 각국은 다양한 규제와 협정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공급망 실사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다. 이들 규제와 협정은 자국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리쇼어링, 원부자재 대체재 개발, 수입처 다변화 및 자립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리쇼어링: 제조업의 재부흥
  - 리쇼어링은 국외에 있던 제조업 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부품의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국내 기술력 강화를 통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원부자재 대체재 개발: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공급망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원부자재 대체재 개발도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 수입처 다변화는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양한 수입처 확보를 통해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수급 안정화 및 자립화 전략: 내수 기반 강화
  - 수급 안정화 및 자립화 전략은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규제 대응 전략은 각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급망 관리의 5가지 주요 플랜 및 사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공급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디지털 변환, 공급처 다변화 및 국내 소싱, 수요 예측 및 계획 B 마련, 공급망 관계 관리, 그리고 단기 및 장기 계획의 균형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전략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 사례를 통해 기업들도 다양한 방안으로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 변환을 통한 공급망 가시성 향상
  - 디지털 변환은 공급망 관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AI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망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재고 관리와 배송 최적화를 자동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FedEx는 IoT 기술과 머신러닝을 통합한 고급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패키지 배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 계획 B의 중요성과 수요 예측
  - 정확한 수요 예측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과잉 재고 방지에 기여한다. Amazon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하여 수요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재고 관리 및 배송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다.

- 공급망 관계 관리 및 파트너십 강화
  - 강력한 공급업체 관계는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이다. Toyota는 공급업체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켜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단기 및 장기 계획의 균형
  -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Siemens는 재생에너지와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유연한 공급망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급망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중국의 식량 안보 관련 동향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연말 「식량안전 보장법」을 법제화하여, 올해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식량 안보 관련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배경

- 중국의 인구는 14억 2,567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하나, 중국은 전세계 경작지의 10% 미만, 수자원의 6%만을 보유하고 있다.
  - ▶ 미국의 1인당 경작지는 0.48헥타르인 반면, 중국의 1인당 경작지는 0.08헥타르에 불과하다.
- 역사적으로 식량안보는 중국의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 ▶ 청나라 당시 중국 인구는 1741년에서 1850년까지 약 300% 증가하였으나, 경작지는 1661년에서 1833년까지 약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1인당 경작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1848년 허난성 가뭄, 1849년 양쯔강 연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대기근은 태평천국 운동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중국 인구(명) : (1741년) 1억 4,300만 → (1850년) 4억 3,000만
경작지 면적(묘) : (1661년) 5억 4,900만 → (1850년) 7억 3,700만

중국의 주요 식량안보 과제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해 5% 이상 감소하였다.
  - ▶ 경작지 면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9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자국 경작지 면적의 하한을 1억 2천만 헥타르로 설정하고, 하한선 유지를 위한 농지 복원 조치 · 휴경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다.
  - ▶ 또한 중국은 농지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전략 '국가 고표준 농지 건설계획'(2021~2030)을 발표한 바 있다.
-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글로벌 문화에 노출되면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중국인의 식생활이 변화하였다.
  -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농산물, 육류, 기름, 설탕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 2025년까지 중산층이 중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료용 곡물 및 육류 등의 수요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사무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 물류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농업 생산성을 저하하고 농업 종사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이에 중국 정부는 2023년 4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일회성 보조금으로 100억 위안을 할당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

- 식량안보정책 시행으로 자국내 식량 생산량은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사료용 · 가공용 수요가 증가한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가 뚜렷하며, 최대 수입 품목인 대두도 증산정책에 힘입어 201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 2015년~2022년 대두의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 7.3%
- 식량의 식용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나 가공용 · 사료용 ·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총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로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가공용 · 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소비 증가가 식량 총 소비량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 ▶ 2011~2021년 동안 식량 총 소비량에서 식용 비중은 42.6%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사료용은 25%에서 29.3%, 착유용은 9.2%에서 11.4%, 가공용은 14.3%에서 15.6%로 증가하였다.
- 2010년대 이후 가공용 · 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수입량 증가로 식량 순수입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 2001년~2023년 동안 식량 순수입량 규모는 959만톤에서 1억 5,934만톤으로 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 ▶ 2021~2023년 동안 대두 수입량은 1,394만톤에서 9,941만톤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2023년 수입량은 자국내 생산량의 약 5배에 달한다.
  - ▶ 쌀, 밀, 옥수수, 보리의 수입량은 2008년~2010년 3개년 평균 338만톤에서 2021~2023년 3개년 평균 5,043만톤으로 15배 증가하였다.

식량안전 보장법의 주요 내용

- 식량안전 보장법은 그간 추진해왔던 식량안보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사항을 명시하였다.
  - ▶ 식량안보에 관련한 책임을 각극 지방정부의 장에게 지우는 식량성장책임제를 법제화한 식량안보책임제를 실시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식량안보 보장 관련 관리 · 감독 업무를 열거하고, 식량안보 책임 미이행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에 대한 처분 사항을 비롯해 경지이용 요구 사항 위반, 식량 비축 · 유통 · 응급 관련 법률 규정 위반 등 본 법률 위반시 처벌사항을 규정하였다.
- (경지 보호) 경작지 보호를 위한 기본농지 총량의 하한선 규정, 경지 이용 우선순위 부여 및 경지 품질 보호 · 확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 (식량 생산) 자연재해 대응 및 병충해 방제, 기술 보급,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등 식량 생산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식량 비축) 국가식량비축체계 구축, 정부 비축을 위탁받은 기업 · 조직의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 식량 비축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식량 응급) 식량위험기금의 설치 및 용도, 정부의 시장조절 역할 및 식량 유통 관련 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
- (식량 가공) 식량 가공산업 발전 촉진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식량 절약)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치 사항 및 식량 생산 · 유통 · 소비 단계의 식량 손실 최소화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급망 소식통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안내

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중소기업중앙화가 합동으로 국내기업의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위해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EU 수출기업 등 CBAM 대상기업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 '24.5.30.(목) 14:00-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지하 1층 KBIZ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주 관** :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철강협회 등
- **참석 대상** : EU 수출기업 등 CBAM 대상기업 임직원 * 참가비 무료
- **주요 내용** :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 실무교육 및 컨설팅 등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세션1	14:00-14:30('30)	설명회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션2	14:30-15:00('30)	CBAM 배출량 선정방법 이해 - CBAM 배출량 산정 개요 - 단계별 배출량 산정방법 설명	한국품질재단
	15:00-15:30('30)	CBAM 산정 실습 및 템플릿 작성 방법 - 중소기업 현황별 산정 예시 설명 - 필수 정보 제공을 위한 템플릿 활용 방법	능률협회컨설팅
	15:30-15:50('20)	질의응답	참석자
15:50-16:00('10)		브레이크 타임	-
세션3	16:00-16:30('30)	CBAM 대응 우수 기업 사례 소개	세아베스틸
	16:30-17:00('30)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소개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 온라인(유튜브) 송출 예정

사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바로 가기」 클릭 후 온라인 신청
- **마감 기한** : ~5.28.(화) 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02-2124-3124 / bmchoi@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02-2124-3122 / pmh@kbiz.or.kr

글로벌 경제지표 ['24.5.14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5/10	5/13	5/14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68.10	1,368.20	1,369.10	0.07%	6.30%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65.60	1,365.90	1,366.80	0.07%	6.22%
₩/CNY	181.44	181.37	185.10	189.34	189.15	189.16	0.01%	4.30%
₩/￥100	945.56	912.25	888.91	879.41	878.06	874.94	△0.36%	△4.09%
￥/U$	133.73	141.19	149.79	155.57	155.82	156.48	0.42%	10.83%
U$/EUR€	1.0617	1.1105	1.0835	1.0778	1.0772	1.0781	0.08%	△2.92%
CNY/U$	6.9630	7.1092	7.1938	7.2243	7.2342	7.2378	0.05%	1.81%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42.0원, **(₩/￥100)** 893.6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5/13	5/14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3.87	83.91	0,04	13.6	6.8
						0,05%	19.3%	8.9%
철광석		97.35(5.24일)	140.50	117.25	115.05	△2.2	17.7	△25.5
						△1.9	18.2	△18.1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10,009.00	10,077.00	68.0	2264.5	1601
						0.7%	29.0%	18.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10.00	2,477.5	△32.5	409	142
						△1.3%	19.8%	6.1%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8,910.00	18,940.00	30	3055	2640
						0.2%	19.2%	16.2%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5/9	5/10	5/13	5월(~1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5	1.95	1.94	1.95
(%, YoY)	29.9%	△23.0%	△14.8%	△3.6%	6.6%	22.0%	22.9%	23.0%	23.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9	6.39	6.39	6.39
(%,YoY)	14.7%	10.7%	△2.3%	△1.9%	△0.7%	0.0	0.0	0.0	0.1%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12/30('22년)	12/29('23년)	4/19	4/26	5.10	전주비(4/26)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1769.54	1940.63	2305.79	18.8%	31.0%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12/23('22년)	12/22('23년)	1/1	5/8	5/9	5/10	5/13	전주비(5/10)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2203	2166	2129	2066	△2.9%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02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로봇산업협회 | 한국바이오협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수입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전략물자관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